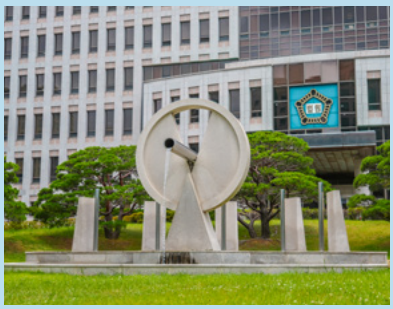
법원사람들

08

2026 August Vol. 496







균형 잡힌 통찰
사려 깊은 조율

대한민국법원

QR코드를 통해
법원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Cover story

치우침 없는 균형감각과 유연한 지혜로 참된 정의를 찾아가는 부산고등법원을 만났습니다. 2심 재판기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사법 신뢰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구성원들의 진솔한 소명 의식을 만나봅니다. 재판의 든든한 조력자인 재판연구원의 특별한 발자취도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사람들

2026 August Vol. 496

발행일
2026년 8월 1일
발행인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편집인
공보관 이도행
편집총괄인
홍보기획관 이우탁
편집기획팀
곽인욱, 유수연, 백지연, 신유림
발행처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전화
02-3480-1456
팩스
02-533-5484
기획·디자인·편집
디앤씨컴퍼니



법원의 울림

06
빛나는 얼굴
열린 법원, 따뜻한 공간, 신뢰받는 법원
부산고등법원

12
현장의 시선
부산고등법원

14
근처 한 바퀴
도시의 불빛을 굽어보는 산마루,
부산 황령산 봉수대 트레킹

16
맛있는 선택
무더위를 이기는 든든한 한 끼
몸과 마음을 보양하는 연제구 알짜 맛집

18
성장의 발자취
정답 없는 질문의 해답을 찾아서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연구원
세 사람의 동행



사람들의 하모니

24
사유의 순간
마이클의 아픔과
무지갯빛 치유

28
시간의 기억
야경이 매력적인 도시, 상하이
일상의 쉼표를 찍다

32
마음의 온기
영화 좋아하세요?

36
조사심의관 코너
핑계는 끝났다!
대출 대기 없는
18만 권의 서재로 초대합니다

42
법원의 하루
법정의 치안은 내게 맡겨라!
보안관리대 에이스 하광림의 하루



일상의 여운

44
우리집 진짜 주인
텃밭을 일구다

48
이달의 필사
푸른 여름 저녁
내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50
Movie Pick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는 일
영화 〈파반느〉

52
Smart Court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질문의 기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54
독자 참여
센스 만점! 법원 N행시 짓기

대법원 채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8월,
너른 바다를 닮은
마음으로

눈부신 여름 햇살 아래 웅장하게 펼쳐진 부산의 바다가
시원한 물결을 일으키며 여름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반짝이는 해운대 바다와 창가를 부드럽게 감싸는 해풍은
바쁜 일상 속 모두의 마음에 청량함과 생동감을 가득 채워줍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수많은 삶을 품어 온 부산고등법원은
2심 법원으로서의 소명을 가슴 깊이 아로새깁니다.
층층이 얽혀드는 복잡한 사연과 경합하는 사법 가치들 앞에서,
사건의 실체를 꿰뚫는 통찰과 민생을 빠르게 다독이는 유연함으로
치우침 없는 균형을 찾아갑니다.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한 번 더 헤아리는 것.
신중한 심리와 엄정한 판단이 모여 정의가 바로 설 때
누군가의 억울함은 사라지고 뒤틀린 일상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숨을 고르는 사람들, 그 안도의 순간을 위해
오늘도 부산고등법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 부산의 바다처럼 너른 마음으로
누군가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당신을 응원합니다.
정의를 향한 모든 고심의 순간들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위로이자 희망의 바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August





열린 법원, 따뜻한 공간, 신뢰받는 법원
부산고등법원

(왼쪽부터) 전유상 판사, 임지수 재판연구원, 박중호 사무관, 김종우 주무관, 최희호 시설과장,
최수환 법원장, 윤혜영 행정관, 정승연 재판연구원, 양형모 주무관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해 나가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균형감각과 유연한 대처가 모두 필요하다. 부산고등법원 또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항소심 앞에서 치우침 없는 공정한 심리와 깊이 있는 혜안으로 정확한 판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의 항소 사건을 엄정하게 다루는 고등법원 본연의 소명을 다하면서도, 대민 서비스의 혁신과 '열린문화공간'을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곳. 정의로운 판결과 따뜻한 교감이 공존하는 부산고등법원의 오늘을 들여다본다.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유서 깊은 부민동에서 거제동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항소심의 중심

부산고등법원은 1987년 9월,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던 유서 깊은 부민동 건물에서 3개의 재판부와 사무국을 갖춘 형태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01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자리한 지상 16층 규모의 부산법원종합청사로 이전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2010년 창원 원외재판부, 2021년 울산 원외재판부를 차례로 신설하며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의 항소심을 아우르는 법원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부산고등법원은 본원 8개 재판부를 중심으로, 창원 원외재판부 4개와 울산 원외재판부 2개를 합쳐 총 14개의 재판부를 운용하고 있다. 법관 40명, 재판연구원 26명, 일반직 95명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민사항소, 형사항소, 행정항소, 가사항소를 비롯해 각종 항고사건과 형사재정신청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한다. 1심 판단을 다시 한번 엄정하게 살피는 2심 재판 기관이라는 무거운 소명 앞에서, 구성원 모두가 깊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청사

더 가깝게, 더 신속하게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진취적인 변화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년간 굵직한 변화를 차례로 이뤄냈다. 먼저 2021년 부산광역등기국이 완공되어 부산종합청사 1층에 자리했던 등기과와 3개의 지역 등기소가 통합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공실이 된 기존 등기과 자리는 협소했던 부산가정법원 접수실을 확장 이전함으로써 공간 효율을 높였다.

또한 같은 해 3월, 울산광역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및 사법 지원 편의를 위해 울산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다. 설치 이전에는 울산이나 양산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 원외재판부가 신설되었고, 이후 원거리 이동비용이 절감되고 지역 법조 서비스까지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1월에는 감정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해 감정 실시 비율이 높은 의료 및 건설 사건의 감정 소요 일수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6월에는 지역 대학병원 두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감정의 신속 및 효율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갖췄다. 2026년 6월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관련 기관으로 협약 대상을 넓혀 건축 분야의 공정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기반도 탄탄히 다졌다.



(왼쪽부터) 박중호 사무관, 김종우 주무관, 정승연 재판연구원, 전유상 판사, 최희호 시설과장, 최수환 법원장, 윤혜영 행정관, 임지수 재판연구원, 양형모 주무관

신뢰받는 재판의 밑거름
끊임없는 탐구와 성장

부산고등법원이 추구하는 사법 가치는 '균형감각'과 '유연함'의 조화다.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민생사건 등의 경우처럼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당사자들을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짓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 다른 면에서는 치밀한 법리 연구로 유의미한 선례를 만들어야 할 사안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야 할 사안도 존재한다. 이처럼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 사법 가치가 병존하고 경합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만큼, 부산고등법원은 분쟁의 참된 해결을 지향하며 언제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맞는 유연한 해법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러한 철학은 다양한 연구회 활동으로 꽃을 피운다. 공판 중심의 심리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하고 공정한 행사에 기여하기 위한 '공판중심주의 활성화 위원회', 구술변론주의 등 법정 중심의 심리 활성화와 항소심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안 등을 탐구하는 '구술변론주의 활성화 위원회',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실무 문제를 연구하는 '부산판례연구회', 그리고 '민사·형사·사법행정 실무연구회'까지. 법원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논의하고 배우는 이 자리들은, 균형감각과 유



(왼쪽부터) 임지수 재판연구원, 최수환 법원장, 박중호 사무관



(왼쪽부터) 윤혜영 행정관, 정승연 재판연구원, 최희호 시설과장, 김종우 주무관

연함이라는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부산고등법원의 부단한 노력의 증거가 되고 있다.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재판을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닦는 구성원들의 열의야말로 부산고등법원이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2심 법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열린 공간에서 피어나는 교감과 나눔의 문화

부산법원종합청사에는 법원전시관과 북카페, 도서관, 예술 전시장 등 시민 친화적인 장소가 여럿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법률 지식은 물론 흥미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법원이자 열린 이웃으로서 다가가고 있다.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다채로운 행사 역시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중에서도 '오픈 코트 주간'은 부산고등법원의 대표적인 이벤트로 꼽힌다. 지역 주민과 민원인, 법원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의 장으로, 이 시기에는 부산법원 가족으로 구성된 '부산법원 행복합창단'의 공연을 비롯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시네마 & 애니메이션 클래식 음악회', 인문학 교양강좌, 지역 미술작가 전시회까지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8월 사회적 약자 단체와의 동행 활동 중 하나로 진행된 〈우리들의 행복 코드展〉은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울림을 남겼다. 청사 지하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개최된 이 전시회는 부산지역 발달장애 예술인 비영리단체 '이지투게더' 소속 미술 작가들을 초청해 마련되었다. 작가들은 본인의 작품을 직접 해설하며 관람객과 눈을 맞췄고, 법원 구성원과 시민들은 예술이라는 언어로 그들과 깊이 교감할 수 있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법원 담장 밖으로도 흘러넘친다.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법관과 직원들로 꾸려진 자원봉사단체 '정겨운 세상 만들기'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 봉사활동과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기적 전체 봉사인 무료 급식과 연탄배달 봉사를 비롯해 국수 나눔, 사랑의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열린 법원, 따뜻한 공간, 신뢰받는 법원'이라는 부산고등법원의 슬로건에는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가 오롯이 담겨 있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청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서비스라는 가장 본질적인 책무까지, 균형감각과 유연함으로 법원의 지향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부산고등법원. 열린 공간에서 피어난 따뜻한 신뢰가 부산, 울산, 경남 전역 시민의 삶 속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해 본다.



(왼쪽부터) 김종우 주무관, 윤혜영 행정관, 양형모 주무관

지역민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한뜻이 되어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최수환**



부산고등법원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부산·울산·경남 사법의 중심지로서 지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수호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살려 해상법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학술·문화행사와 대민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고, 늘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하고 열린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법 행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실천하자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관행적인 업무처리에 익숙해지거나 법원 구성원의 편의부터 좇을 우려가 있으므로, 늘 '국민의 눈높이'를 가슴에 새기고 무겁게 받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만의 특별한 조직 문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법관이 사법권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는 부산고등법원이 이뤄내는 탁월한 재판의 크나큰 비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재판과 사법 행정을 위해서라면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상대방 역시 이를 적극 수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장으로서 법원 구성원 간에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연구회와 세미나를 적극 장려하며 직장 내 토론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법원을 찾아주신 지역민들께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법원 가족 여러분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지역민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한뜻이 되어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향해 발맞추어 나가겠습니다.

I N T E R V I E W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열린문화공간

부산법원종합청사 지하 1층에는 우리의 감수성이 깨어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산법원 열린문화공간'입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복도 구간에 예술이라는 옷을 입히자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뜻깊은 장소가 탄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림, 사진, 공예품, 조각품 등이 주기적으로 소개됩니다.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물론 나만의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장애인, 학생, 지역주민에게도 전시 신청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예술 전시를 통해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푸른 옥상 정원에서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느덧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청사 5층에 자리한 해들마당에 들어서자 싱그러운 초록빛에 벌써 눈이 맑아집니다. 해들마당은 법원 가족들과 민원인 누구나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입니다. 각종 조경수뿐만 아니라 인공 습지까지 조성되어 있어, 일부 공간은 미니 텃밭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사이 산책로를 사뿐히 거닐다 벤치에 앉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니 뭉게구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민원인의 지친 마음은 위로받고, 직원들의 피로는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도시의 불빛을 굽어보는 산마루, 부산 황령산 봉수대 트레킹

글. 편집실

부산의 한복판, 서면과 광안리 사이에 솟은 황령산은 해발 427m의 야트막한 산이지만 그 품은 결코 작지 않다. 낮에는 편백숲의 짙은 향과 도심을 굽어보는 탁 트인 조망이, 밤에는 광안대교의 불빛이 수놓는 야경이 오르는 이를 맞는다. 지하철역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채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이 산에, 도시와 자연이 등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산의 진정한 얼굴이 숨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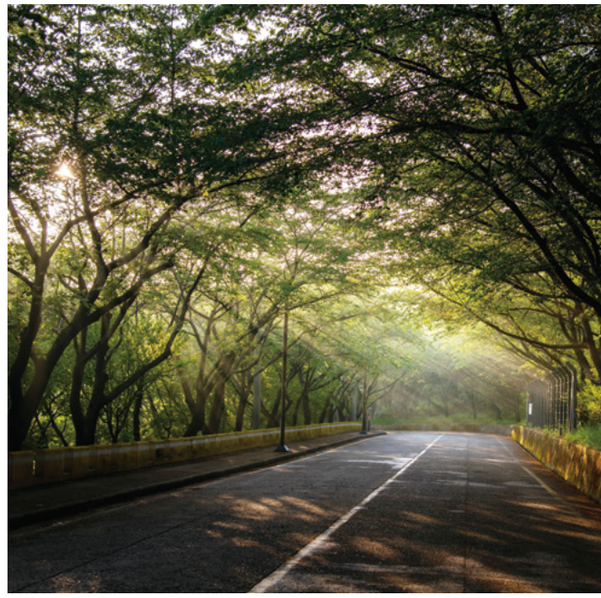
도심에서 만나는 두 가지 산행

- 황령산 봉수대 코스(2시간):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 편백숲길 → 황령산 봉수대 → 정상 표지석 → 원점 회귀
- 황령산 야경 코스(1시간): 전망쉼터 주차장 → 전망쉼터 카페 → 미디어 포토존 → 봉수대 야경 감상

편백 향 밀려드는 숲길 따라, 세월을 품은 봉수대로

편백숲을 지나 봉수대까지, 황령산의 매력은 무엇보다 문턱이 낮다는 데서 시작한다. 부산 진구의 중심에 있어 그 중 어느 쪽에서 올라도 길이 열려 있고, 산 중턱까지 차가 닿으니 걷는 이도 오르는 이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산을 만난다. 그 중에서도 두 발로 오르는 길의 백미는 단연 편백숲 구간이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초입부터 하늘을 가린 편백나무가 빽빽이 도열해 있어, 몇 걸음만 들어서도 도심의 소음이 씻은 듯 잦아든다. 숲 사이로 불어오는 산바람에 땀을 식히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편백숲을 벗어나면 이십여 분 남짓 가파른 오르막이 이어진다. 숨이 턱에 찰 즈음 시야가 트이고, 돌을 쌓아 올린 봉수대가 능선 위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선 세종 때 축조된 이 봉수대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나라의 소식을 전하던 군사시설이었다. 수백 년 전 파수꾼이 바다를 살피던 그 자리에 서면, 해운대의 마천루와 광안대교, 서면의 빌딩숲과 부산항 일대가 펼쳐진다.



황혼이 내리는 산마루, 밤의 보석으로 빛나는 도시

황령산의 풍경은 해가 진 뒤에 한 번 더 변한다. 산 정상 부근의 전망쉼터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야경 명소로, 차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 밤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쉼터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면 통유리 너머로 부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부산 사람들이 데이트 코스로 아껴 찾는 자리답게, 해 질 무렵이면 노을을 기다리는 연인들이 난간을 따라 하나둘 자리를 잡는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광안대교와 그 아래 검게 가라앉은 바다, 서면과 동래 일대를 잇는 촘촘한 불빛의 그물이 발아래 펼쳐진다.

일몰의 붉은 기운이 남은 하늘이 서서히 짙어지고 도시의 불이 하나둘 켜지는 순간은, 사진작가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오래도록 기다리는 바로 그 장면이다. 또한 산복도로 드라이브 코스는 이 야경을 차 안에서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길로, 부산 사람들이 아끼는 밤 산책로이기도 하다.

황령산은 높지 않지만,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산은 어느 산에서보다 넓고 깊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여름 저녁, 편백 향을 따라 오른 산마루에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순간을 기다려 보는 것은 어떨까.







무더위를 이기는 든든한 한 끼
몸과 마음을 보양하는 연제구 알짜 맛집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온몸이 쩍쩍 달라붙는 후덥지근한 날씨는 점심 식사를 위한 외출도 꺼려지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날씨일수록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통해 심신을 보양해야 하는 법! 부산고등법원 구성원들이 엄선한, 한여름을 이겨낼 에너지를 채워주는 점심 식당 두 곳을 함께 따라가 보자.

식당 추천. 부산고등법원 김종우 주무관, 이소정 주무관



참치누드김밥과 치즈김밥의 대명사 돼랑이투칼국수

돼랑이투칼국수는 부담 없이 방문하기 좋은 부산고등법원 인근의 가성비 맛집이다. 간단하지만 만족스러운 점심을 먹고 싶은 날엔 칼국수와 참치치즈누드김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돼랑이투칼국수가 제격이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가성비다. 요즘처럼 외식 물가가 부담스러운 시기에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할 수 있고, 음식의 맛도 여느 식당에 뒤지지 않아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식당이다.

추천 메뉴는 단연 칼국수로, 따뜻하고 담백한 국물과 면이 잘 어우러져 점심 식사로 부담 없이 먹기 좋다. 여기에 참치치즈누드김밥을 곁들이면 더욱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된다. 참치치즈누드김밥을 먹을 때는 같이 나온 땡초양념의 땡초를 김밥에 하나 얹어서 먹어 보시길. 맵싸한 땡초가 참치치즈누드김밥과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며 다시 또 맛보고 싶은 별미로 남는다.

알려드립니다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06
- 칼국수 7,000원,
  참치치즈누드김밥 4,000원
- 11:00~19:00
  *브레이크 타임 14:00~15:00
  *매주 토·일요일 휴무
- 051-501-5178
- 김종우 주무관

정성이 빚어낸 깊은 맛 민정한우수육국밥

부산 연산동에 위치한 민정한우수육국밥은 깊고 진한 국물 맛과 부드러운 한우 수육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맛집이다. 정성껏 우려낸 국물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자랑하고, 잡내 없이 삶아 낸 한우 수육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며 든든한 만족감을 선사한다.

지난해 1월 1일, 동료들과 함께 새해를 맞아 찾은 민정한우수육국밥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덕담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동료들과 웃음꽃을 피우며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던 그 시간 덕분에 이곳은 단순한 맛집을 넘어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가 되었다.

부산고등법원 인근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민정한우수육국밥에 꼭 한 번 들러보길 바란다. 정성이 담긴 한우 수육과 깊은 맛의 국밥 한 그릇이 바쁜 일상 속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며, 따뜻한 식사와 함께 부산의 정겨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알려드립니다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45번길 13
- 한우국밥 9,000원, 육회비빔밥 10,000원, 뭉티기 20,000원, 한우아롱사태수육小 20,000원
- 월~토요일 11:00~22:00
  일요일11:00~21:00
- 051-865-2042
- 이소정 주무관

정답 없는 질문의 해답을 찾아서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 재판연구원 세 사람의 동행

글. 편집실 **사진.** 홍승진



법원의 하루는 기록으로 시작해 기록으로 끝난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누군가의 절박함이,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몇 장의 서류 안에 담겨 책상 위에 놓인다. 그 모든 사연을 매일 마주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2부의 정광민, 김영대, 강경빈 재판연구원이다.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든 세 사람은 수많은 기록과 씨름하며 법조인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 조금씩 단단해져 왔다. 처음 기록 앞에 섰던 그날의 설렘과 두려움부터, 위기를 넘어 성장을 이뤄낸 지금까지, 세 사람이 함께 걸어온 성장의 시간을 따라가 보았다.

기록 앞에 선 첫날, 그 설렘과 무게 사이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첫 출근 날 누구에게나 그 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민사2부의 문을 처음 열던 날, 김영대, 정광민, 강경빈 재판연구원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각오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김영대 첫 출근 날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보다도 '과연 내가 이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특히 고등법원 사건은 다루는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바짝 긴장했죠. 다만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정광민 1년 차에 민사부를 경험했지만, 작년에는 형사부에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민사 사건을 마주하려니 긴장감과 약간의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고등법원에서의 민사 사건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오는 신선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강경빈 저 역시 1년 차에는 민사부를 경험했고 2년 차에는 형사와 행정 재판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민사법리를 조금 잊은 부분도 있었고, 선배들로부터 고등법원의 민사 사건은 지방법원의 민사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크고 난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긴장감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잘 해내겠다는 각오로 고등법원 민사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느덧 재판연구원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민형사 사건을 마주하면서 이제는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업무에도 익숙해졌지만, 처음 임용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예상과 다른 현실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책 속의 법과 법정 안의 법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도 그 무게가 전혀 달랐다.

정광민 로스쿨에서는 확정된 사실관계 혹은 전형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와 법리 중심으로만 학습했어요. 하지만 실제 일을 시작해 보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보다 '사실인정'이라는 것을 느꼈죠.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누구의 말이 타당하고 어떤 사실이 맞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가장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김영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는 법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 가고 있어요.

강경빈 구체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 등 더 넓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기록 자체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공부할 때와는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과 달리 정제된 기록만 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더욱이 쌍방 대리인이 붙어있는 경우엔 당사자 모두 아예 이유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존에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넘어 누구의 주장이 더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
기댈 수 있는 아군.
그것이 이들이
함께 만들어 온
가장 단단한
성장의 결실이다.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영대

재판연구원의 업무는 기록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 한 줄의 기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록을 검토하는 세 사람은 어느 한순간도 집중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산더미 같은 기록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각자만의 힘이 있었다.

강경빈 재판연구원으로서 '사회의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소명을 가지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을 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힘에 부칠 때는 집에서 휴식하거나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컨디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한 사건에 담긴 당사자들의 삶과 고민을 생각하면 책임감이 더욱 강해집니다. 맡은 업무를 성실히 마무리했을 때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은 제가 업무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정광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운동으로 답답한 마음을 풀고, 주말에는 부산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동기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버팀목 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바로 동료였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동기들의 존재는 이들에게 더없이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정광민 재판연구원 생활에 있어 동기가 참 소중합니다. 업무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중앙 테이블에 모여 다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힘든 점이 있으면 털어놓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저 혼자 고민해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적인 조언뿐 아니라 사소한 고민까지 편하게 나눌 수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빈 누군가 문제에 부딪히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발 벗고 나서서 함께 리서치하고 고민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생활면에서도 의지가 됩니다. 대부분이 부산에 연고가 없어서인지, 같이 식사하거나 취미생활을 함께하면서 삶을 나누고 있어요.

위기 그리고 극복,
한 계단씩 올라가는 성장의 시간

하나의 사건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 안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참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사건을 파고드는 일은 언제나 위기의 연속이다. 처음 보는 법을 마주하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기록 앞에 손이 멈춰버리는 순간은, 세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광민 로스쿨에서 배워보지 못한 법이나 생전 처음 보는 법을 적용해야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공부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법리적으로만 보면 일방이 승소하는 것이 맞지만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다른 결론이 고민되는 사건들을 마주할 때는 고민이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김영대 저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어디서부터 검토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법률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강경빈 법리 문제가 아닌 두꺼운 기록에서 사실을 확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사건 자체가 조금 산만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이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복잡한 수식을 바탕으로 엑셀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감정 결과를 검토하는 것은 법리 공부와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해답은 있었다. 때로는 선배의 조언을 따라, 때로는 동기와의 밤샘 연구와 함께, 때로는 오롯하게 기록과 씨름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위기를 하나씩 헤쳐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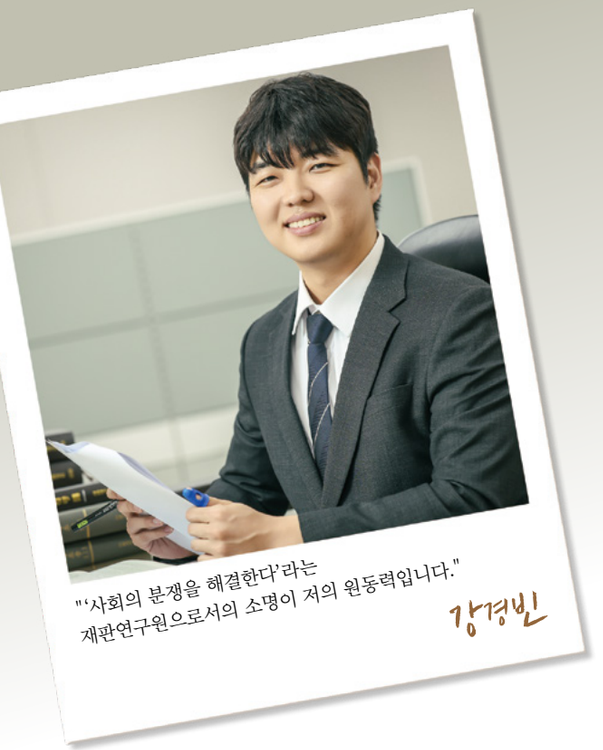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정광민

정광민 같은 방을 쓰는 동기 연구원들과 의논하고 부장님을 찾아가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관련 책과 선례들을 찾아보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만큼 스스로 내린 결론에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부딪힌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김영대 큰 사건을 우선 작은 쟁점 단위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 연구원들과 부장님의 조언을 구하고 관련 판례와 문헌을 반복해서 검토하니 조금씩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경빈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때는 부장님들께 조언을 구하거나 연구원들에게 의견을 물어가며 기준을 잡아갔습니다. 엑셀이나 전문 지식은 그냥 따로 공부하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료나 건설과 같은 분야의 경우 AI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방대한 기록과 수많은 쟁점 앞에서 참된 정의를 찾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끝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한 계단 성장했다는 뿌듯함이 가슴에 남았다. 이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는다.

정광민 깊이 고민했던 사건들은 유독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다른 사건에서 비슷한 고민을 마주할 때 좋은 참고가 되었고, 해결했을 때의 뿌듯함이 다음 일을 해나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영대 예전에는 어려운 사건을 마주하면 부담감부터 느꼈지만, 지금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낯선 쟁점을 접하더라도 이전보다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경빈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기록을 정리하는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려운 사건을 맡더라도 결국 실마리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법조인의 시간

예전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기록들도 이제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두려움보다 일단 부딪혀 보는 용기, 복잡한 쟁점 속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감각, 나만의 기준과 체계를 세워가는 힘. 입사 초기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세 사람은 분명 더 단단해져 있었다.

정광민 예전에는 어려운 사건을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시작해서 부딪혀 보자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그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전에 비해 분명히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김영대 입사 초기에는 새로운 사건을 접할 때마다 불안감이 컸지만, 지금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검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경력이 쌓인 덕분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나름의 기준과 체계가 생긴 것 같아요.

강경빈 기록을 읽는 법, 그리고 글을 쓰는 법, 업무를 정리해 진행하는 방법 등이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연구원으로서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연구원으로서 지내 온 법원에서의 시간은 법조인으로서의 성장에만 그치지 않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법원 구성원들의 모습은 이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가르쳐 주고 있다.

정광민 법원의 모든 직원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거창한 목표보다도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중입니다.

김영대 어떤 일이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꾸준히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분들을 볼 때면 책임감과 성실함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강경빈 민원, 기록 제조, 행정 업무 등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함께 성장한 시간만큼, 서로에게 남기고 싶은 모습도 선명해졌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어떤 재판연구원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었다. 세 사람의 대답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정광민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즐겁거나 힘든 상황을 모두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아군 같은 재판연구원으로 기억된다면 좋겠습니다.

김영대 업무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료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강경빈 업무적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연구원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해 온 정광민, 김영대, 강경빈 재판연구원. 그 성장의 끝에는 언제나 서로가 있었다. 믿을 수 있는 동료, 기댈 수 있는 아군. 그것이 이들이 함께 만들어 온 가장 단단한 성장의 결실이다.



마이클의 아픔과 무지갯빛 치유

글. 인천가정법원 서유나 행정관





영화 〈마이클〉 공식 포스터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마이클 잭슨의 전성기에 나는 2~30대였고 그가 생을 마감한 때는 나의 첫째 아들이 태어난 해였다. 그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사후 1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영화 〈마이클〉을 통해 마치 그가 생존하는 사람인 듯 그의 음악과 삶에 대한 자료들과 함께하며 지낸다. 그에 관한 수많은 영상 자료를 찾아보면 놀라움의 연속이다.

첫 번째 놀라움은 그의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 그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인기와 영향력이다. 그는 다섯 살 때부터 가수 생활을 시작해, 열두 살 무렵엔 빌보드 차트 1위에 자신의 음악을 네 곡이나 올린다. 그의 음반은 평생 7억 5천만 장이 팔리고, 그래미상을 열세 번 수상한다. 생전에 펼친 세 번의 월드투어에는 '역대 최다 관객 동원', '역대 최고 수익'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1996년 9월에 시작해 이듬해까지 82회를 이어 간 그의 마지막 투어는 35개국 58개 도시에서 450만 명이 넘는 팬을 모은다. 총수익은 1억 6,500만 달러를 넘어, 당시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투어로 기록됐다. 공연 당 평균 관객은 약 5만 5천 명, 최다 관객은 체코 프라하 개막 공연의 약 12만 7천 명이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인기다.

그의 콘서트 영상에는 수만 수천 명의 팬들이 마이클에게 열광하며 오열하듯 노래를 함께 부르다가 결국 마이클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에 실신해 실려 나가는 모습이 가득하다.

흑인 아티스트로서 최초로 MTV에서 노래를 방영한다. 역사상 최초, 역사상 최다라는 수식어와 함께 그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예인으로 평가되며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 불린다. 그의 음반 판매량과 수상 경력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된다. 그가 서 있는 곳마다,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를 추앙하며 환호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간절히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의 몸짓에서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강하게 전달된다.

그러나 내게 더욱 놀랍게 다가온 것은, 여느 스타들이 완벽하고 정제된 모습만을 보여 주려는 것과는 달리, 마이클은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했던 어린 시절과 그 상실로 인한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도 투명하게 음악과 삶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다섯 살부터 '인간 마이클'이 되기 위한 성장이 아니라 '팝의 황제'로 만들어지기 위한 지독하고 잔인한 훈련 속에 던져진다. 아버지의 잔인하고 가혹한 체벌과 함께 진행된 혹독한 훈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한다. 어른들의 세계가 그의 성장 무대다. 친구들과 뛰어놀며 자아상이 만들어져 가는 대신 대중들의 평가와 환호 속에 자아상을 찾아간다. 그는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는 어린아이일 뿐인 자신에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정서적 소통을 나누지 않은 아버지였다. 마이클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닌 매니저로 존재하기 고집했고, 계속된 체벌과 질타뿐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인정과 격려를 결코 주지 않았다. 아버지를 보면 기절할 정도로 공포스러웠다고 하니 마이클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려진다.

마이클은 이런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슬퍼하며 아파한다. 피터팬이 되어 어린 시절의 상실을 보상받으려 한다. 그래서 네버랜드를 만들고 그곳에 다양한 어린아이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친구처럼 놀면서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들을 통해 상실된 어린 시절을 경험해 보게 된다. 네버랜드에서뿐만 아니라 공연에도 시상식에도 어린아이들을 동반한다. 그의 공연에서 'Heal The World(힐 더 월드)' 노래를 부를 때 수많은 어린아이를 무대에 세워 함께 노래를 부른다. 시상식이나 공개적 행사에도 어린아이들과 함께한다. 또한 세계 투어 때마다 각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찾아갔고 아픈 아이들을 만나 지원하고 수많은 어린이 자선 단체를 후원한다. 그가 후원한 금액만도 3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그는 39개가 넘는 어린이 자선 단체를 도왔는데 팝스타가 후원한 역대 최다로 남은 기록이다.

2001년 옥스퍼드대 강연을 통해서는 어린아이들을 마법, 경이로움, 신비와 순수함, 사랑과 존재 그 자체를 품고 있는 존재이며 어린아이의 순수함이야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창조의 씨앗임을 믿고 오늘날의 수많은 범죄는 어린 시절을 도둑맞은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한다. 노래의 영감도 아이들의 놀이와 웃음에서, 그들의 눈과 얼굴, 표정과 성품에서 얻으며 그것이 마치 마법과 같다고 한다. 그는 아이들과 물풍선 놀이를 하다가 'Speechless(스피치리스)'라는 명곡을 만들었다. 아무 말이 필요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존재적 사랑에 관한 내용인데 어린아이의 티 없는 웃음에서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간절히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의 몸짓에서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강하게 전달된다.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가치와 중요함에 대한 강한 외침이 된다.
어린 시절은 계산되지 않는 꿈을 꾸고, 계산되지 않는 기쁨을 웃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계산되지 않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때이다. 어른들 특히 부모님의 품 안에서 무조건적인 존재적 사랑을 받는 때이며 어떤 모습이든 수용되고 인정과 돌봄을 받는 때이다. 성과를 위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때이다. 그때가 우리의 어린 시절인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놀라운 것은 마이클은 이 시절의 상실을 어둠으로 그려 내지 않고 도리어 무지갯빛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대중이 그의 노래로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도 마이클이 그려 낸 무지갯빛에서 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된다. 어른이 된 지금도 무엇을 잃어버려 슬퍼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적절한 위로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어린아이를 다시금 마주하게 된다. 나의 어린 시절에 무엇이 부족했고 결핍되어서 여전히 슬퍼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움츠려 있었는지를.
열심히 성실히 사시는 부모님이셨지만 다섯 자녀를 키우셔야 했기에 삶이 녹록하지 않으셔서 자녀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셨을 텐데, 유독 생각과 행동이 느린 나는 혼나기 일쑤고 관심 밖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을 선택한 것 같다. 나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수용 받는 경험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존재라는 자아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가진 가치대로 듬뿍 인정받고 격려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편에 아련한 슬픔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며, 이를 치유해 가는 과정이 우리 삶의 여정이 아닌가 싶다.

존재만으로 받아들여지고, 돌봄을 받고, 사랑 안에서 꿈을 꾸고, 아름다움만을 좇으며 마음껏 웃고 울 수 있어야 하는 우리의 어린 시절.
지금의 어린아이들에게 이 가치를 말해 주고 싶다. 그리고 이미 어른이 된 나에게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외로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잘못된 게 아니고 자체로 아주 소중한 아이며 사랑스러운 아이야'라고 계속 위로해 준다.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난 마이클을 통해 나의 상실에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된다. 마이클의 아픔의 몸짓이 내게 치료의 울림으로 건네진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준 마이클 잭슨. 그의 아픔의 노래 'Childhood(차일드후드)'를 불러 보며,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도 위로를 건넨다.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나요?
내가 태어난 그 세상을 찾고 있어요
내 마음의 분실물 보관소를
이리저리 뒤져 왔거든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아주 이상하고 별난 행동으로 바라볼 뿐이죠…
내가 아이처럼
자꾸 장난을 치니까요, 하지만 날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너무나도 순진한 것들을 좋아하니까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것이 내 운명이었나 봅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나요?
내 어린 날의 그 경이로움을 찾고 있어요
모험 가득한 꿈속의 해적들처럼,
정복과 왕좌에 앉은 왕들의 꿈 말이에요…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려 노력해 봐요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물어봐 주세요,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나요?

사람들은 내가 그런 면에서 이상하다고 말해요
내가 너무나도 순진한 것들을 좋아하니까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것이 내 운명이었나 봅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나요?

– 마이클 잭슨 〈Childhood〉

야경이 매력적인 도시, 상하이 일상의 쉼표를 찍다

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최서은 주무관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고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앞만 보고 달리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앞으로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생활하고자 지난 5월 상하이로 재충전의 여행을 다녀왔다. 우리 조직 안에서 일과 삶의 건강한 균형을 찾기 위해 경험하게 된 상하이 여행. 그곳에서 만난 인상 깊었던 숙소, 명소, 맛집, 그리고 소소한 팁 등을 소개하려 한다.



첫인상: 익숙함과 생경함의 공존

푸둥공항에 착륙 후 상하이 중심가에 도착하여 느낀 첫인상은, 도시적인 느낌이 강해 서울과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이전에 다녀온 영화 〈아바타〉의 배경지 '장자제(장가계)'의 광활한 대자연과는 사뭇 달라 같은 나라 안에 이렇게 다른 분위기의 도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 생경하게 다가왔다.

숙박은: 동선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선택

3박 4일의 일정인 만큼 숙소 예약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동선의 효율성'이었다. 이를 위해 가성비와 럭셔리,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숙소를 선정했다. 가성비 숙소로는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뛰어난 '그랜드 센트럴 호텔'을, 럭셔리 숙소로는 야경과 룸 컨디션이 훌륭한 '그랜드 하얏트 상하이'를 선택했다. 두 곳 모두 쾌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추천한다.

광활한 대자연과는 사뭇 달라
같은 나라 안에
이렇게 다른
분위기의 도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
생경하게 다가왔다.



추천 명소 6선

주가각 수향마을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에 '동양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서정적인 풍경의 마을, 주가각이 있다. 현지인이 실거주하는 수상 가옥과 나룻배가 만들어 낸 운치 있는 풍경이, 도심지와는 또 다른 고즈넉한 분위기를 낸다. 비용을 지불하면 나룻배 체험도 할 수 있으니 천천히 배를 타고 수향마을 이곳저곳 둘러보며 그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추천한다.







디즈니랜드(주토피아 테마)

디즈니랜드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이다. 이번 상하이 디즈니랜드 콘셉트 핵심은 '주토피아'였다. 영화 속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현실감 구현, 어린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트랙션, 마음이 웅장해지는 페스티벌까지. 오감이 즐거운 공간으로 강력히 추천한다.

예원

명나라 관료 반윤단이 아버지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20여 년에 걸쳐 정교하게 조성했다는 효심이 깃든 아름다운 정원이다. 예원은 야경이 아름다워 밤에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하이 마천루 3형제 (상하이 타워, 진마오 타워, 세계금융센터 SWFC)

상하이에는 632m(128층)에 달하는 상하이 타워, 421m(88층)에 달하는 진마오 타워, 병따개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를 가진 492m(101층)의 세계금융센터 등 거대한 마천루가 많다. 상하이를 대표하는 이 세 건물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루자쭈이 포토존에서 올려다보았을 때, 그 웅장함에 실로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밤에 방문하면 화려한 조명 덕분에 더욱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는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며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난징동루 보행자 거리&와이탄

난징동루 보행자 거리를 걸어 도착한 '번드(Bund)', 즉 와이탄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강제로 개항된 역사의 현장이다. 서구의 열강들이 세운 은행과 유흥시설들이 지금의 서구적인 건축물로 남아있다. 밤이 되면 건물들에 황금빛 조명이 켜지며 마치 런던의 빅벤을 연상시키는 유럽풍 야경을 뽐내는데, 황푸강 건너의 동방명주와 어우러져 더욱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황푸강 크루즈를 타며 바라본 야경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상하이 마천루 3형제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난징동루 보행자 거리 & 와이탄





맛집 추천

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단연 타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현지 음식 맛보기라고 생각한다. 상하이에 처음 방문한 것이라 로컬 맛집보다는 초행자를 위한 맛집 위주로 찾아보았고, 이중 인상 깊었던 음식점과 다소 사견이 반영된 필수 메뉴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라오지스 IFC몰점	홍소육, 파기름면, 오이무침
헌지우이치엔	양꼬치
점도덕	홍미창펀(크리스피 새우 롤), 하가우(새우만두), 우유튀김
남상만두	빨대만두
사계민복	베이징덕(북경오리 한 마리)
홍쿠이지아	마라롱샤





소소한 팁

필수 앱 & 결제 팁

중국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거의 쓰지 않는 모바일 결제 사회이다.
따라서 알리페이(Alipay)나 위챗페이(WeChat Pay)를 설치한 후 한국 신용카드를 미리 연동하여 QR코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고덕지도(Amap)

만국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글 지도가 중국에서는 부정확하므로, 중국의 네이버 지도라 할 수 있는 '고덕지도'를 다운로드 해두면 길 찾기, 지하철 노선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디디택시(Didi)

알리페이 내 미니 프로그램이나 별도 앱으로 이용 가능한 중국판 우버이다. 디디택시는 차량 등급이 나뉘어 있는데,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비즈니스(Business)' 등급 이상의 차량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반 차량에 비해 차량 내부가 훨씬 넓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특유의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 이동하는 내내 피로감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속에서 잠시 쉼표를 찍고 다녀온 상하이는 화려한 야경만큼이나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주었다. 부서 직원분들의 배려 덕분에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었던 만큼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고, 다시 일상에 몰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편도 2시간 만에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상하이가, 직원분들께도 잠시 숨을 고르는 따뜻한 환기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영화 좋아하세요?

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서혜 주무관

좋아하는 영화를 묻는 질문 하나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오래 간직해 온 시간과 애정을 꺼내놓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첫 발령지인 이곳 김천에서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다. 서툴게 묻고 부딪히며 쌓아온 시간들. 아직은 사소해 보이는 그 서툰 날들도 언젠가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로 남지 않을까.



좋아해 온 것이 있다는 건
단순히 취향이 있다는
말만은 아닌 것 같다.
어떤 것을 오래 보고,
다시 떠올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만큼 곁에 두었다는
뜻이지 않을까.

애정은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

좋아하는 영화를 묻는 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따라온다. 제목 하나만 듣고 끝날 줄 알았던 대화는 곧잘 다른 이야기로 번진다. 오래 기억하는 장면, 그 영화를 보던 시절, 함께 본 사람, 그때의 고민 같은 것들이 따라온다. 그러다 잠깐 시선이 멀어질 때가 있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사람은 잠시 그 영화를 보던 때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그저 대화를 이어가기 좋은 질문처럼 보였다. 그런데 질문 하나에 오래 간직해 온 시간과 애정들이 돌아왔다. 이야기 끝에 누군가는 기억 속 한 시절의 아쉬움을 꺼내놓기도 했고, 누군가는 다시 돌아와 오래 고른 제목 하나를 적어주기도 했다.

어떤 영화는 함께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어떤 영화는 오래 좋아해 온 것들을 설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그냥 좋았다는 말로 오래 남은 마음을 대신하기도 했다. 그렇게 돌아온 대답들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영화에 자신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는 영화 제목보다 그 사람이 왜 그 영화를 아직 기억하는지가 더 궁금해진다.

내게 영화는 보고 나면 끝나는 것에 가까웠다. 영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일도 익숙하지 않았고, 어떻게 좋아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두 시간 가까이 한 이야기에 머무르는 일도, 보고 난 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았다.

이런 나에게 영화가 주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은 많이 보게 되어서가 아니라, 보고 난 뒤의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였다. 어떤 영화가 좋았다는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왜 그 영화가 아직도 좋은지 설명하려는 사람의 말이었다.

누군가는 여러 번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했고, 누군가는 등장인물에 자신의 시간을 겹쳐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떤 말에는 그 때의 공기와 기분이 오래 남아 있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영화보다 먼저,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이 보이는 것 같았다.

좋아해 온 것이 있다는 건 단순히 취향이 있다는 말만은 아닌 것 같다. 어떤 것을 오래 보고, 다시 떠올리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만큼 곁에 두었다는 뜻이지 않을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기에 부럽고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래 좋아해 온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지나온 날들이 조금씩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쌓인다는 것은 멋진 날들만
모이는 일이 아니라,
서툴게 묻고,
어설프게 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날 다시 해보는
시간들까지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남는 일인 것 같다.



묻고 배우며 다가가는 시간

내가 오래 곁에 둔 것들은 취향이나 애정보다는 준비의 시간에 가까웠다.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보기보다 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했고, 좋아하는 것을 오래 들여다보기보다 눈앞의 하루를 견디고 넘기는 데 더 익숙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으로 남을지 알지 못한 채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지나온 시간이었다. 어쩌면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누군가가 오래 곁에 둔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김천에서 보낸 처음의 날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출근길도 어느새 익숙해졌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길의 빛을 보았고, 혼자였던 출근길에는 조금씩 익숙한 얼굴들이 늘어났다. 점심시간에 오가던 짧은 대화, 커피를 사러 가는 길에 보았던 작은 옥수수나무, 처음 김천에 왔을 때 쌓여 있던 눈과 어느새 그 자리를 대신한 꽃들까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어느 순간 김천에서의 시간으로 남고 있었다. 아직은 서툰 적응의 시간에 가깝지만, 이 날들도 내 안에 조금씩 남고 있는 것만 같다.

사실 합격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 이전보다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다. 시험에 붙었다는 사실이 나를 어딘가 완성된 사람처럼 만들어줄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첫 발령지 김천에 와서 알게 된 것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매일 모르는 것들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업무도, 사람을 대하는 법도,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법도 서툴렀다. 이제는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넘긴 일이 결국 누군가의 다음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를 해내고도 쉽게 마음 놓기 어렵기도 했다. 배울수록 지나간 일들이 다르게 보였고, 해냈다고 생각한 일에서도 놓친 부분이 보였다.

매일의 일은 생각보다 많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질문은 늘 제때의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 말은 정리되기도 전에 나오곤 했고, 다 지나간 뒤에야 떠오르기도 했다. 그럴수록 말을 꺼내기 전 망설이는 일도 많아졌다. 너무 자주 묻는 것 같아 옆자리에 있으면서도 알리미로 질문을 보낸 날도 있었다. 그런 내 서툰 질문의 모양보다 그 안에 담긴 잘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보아주는 분들이 곁에 있었다. 설명은 때로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길어진 말의 끝에는 아무렇지 않은 농담이 따라오기도 했다. 그렇게 나의 서툰 시간을 받아주시는 분들 곁에서 나는 업무뿐만 아니라 서툰 시간을 견디고 대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김천에 와서 내게 남고 있는 건 대단한 기준이나 단단한 태도라기보다, 묻고 적고 다시 해보던 날들에 가깝다. 지나간 일을 돌아보며 놓친 것을 깨닫고, 정리하고, 다시 배우는 날들 말이다. 아직은 이 시간이 무엇으로 남을지 알 수 없어 사소하게만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이 쌓이면 언젠가는 내 안에 남은 것을 꺼내 말하는 일도 지금보다 덜 어렵지 않을까.

서툰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

예전에는 무언가를 쌓는다는 말을 조금 거창하게 생각했다. 오래 좋아해 온 취향, 단단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태도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오래 간직한 애정은 어쩌면 처음부터 선명했던 것이 아니라, 서툰 시간들이 사라지지 않고 조금씩 남은 것이 아닐까. 쌓인다는 것은 멋진 날들만 모이는 일이 아니라, 서툴게 묻고, 어설프게 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날 다시 해보는 시간들까지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남는 일인 것 같다.

아직 나는 영화도, 일도, 사람도 잘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 좋은 말을 오래 간직하는 법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그래도 이제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영화를 말할 때, 그 제목 뒤에 함께 딸려오는 시간들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말하게 된다면, 그 대답 안에는 아마 김천에서 보낸 이 시간들도 담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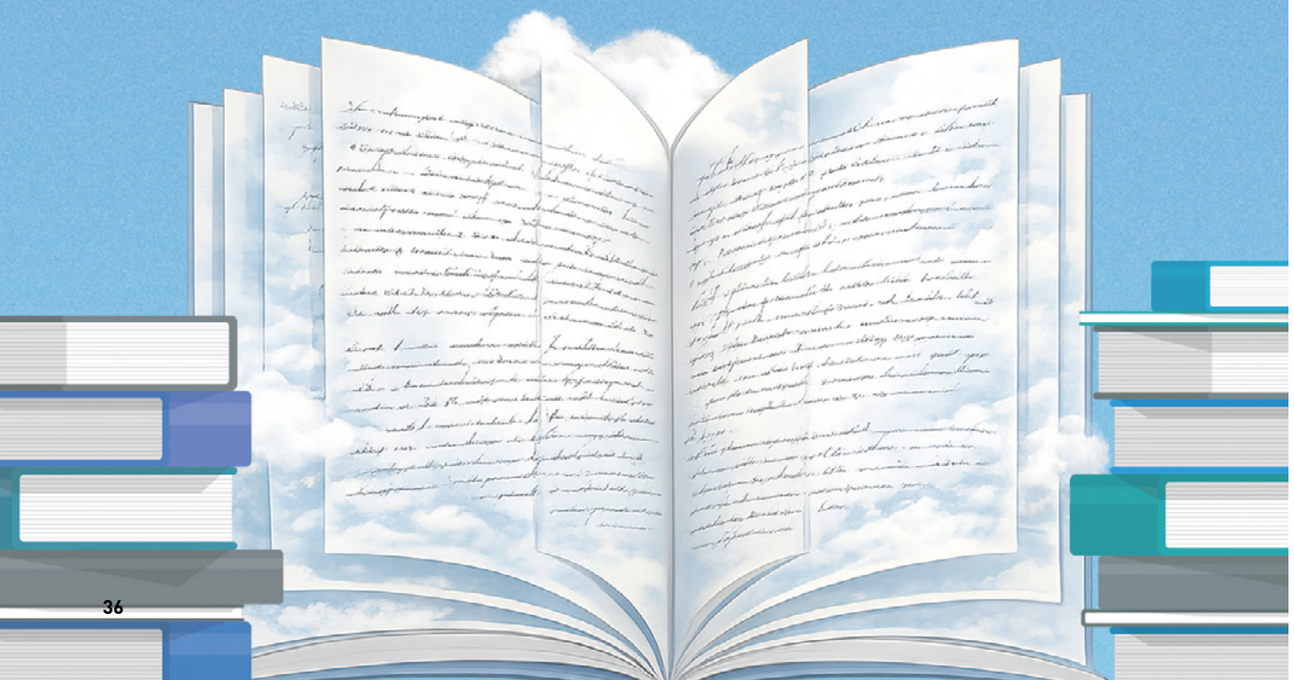
영화 좋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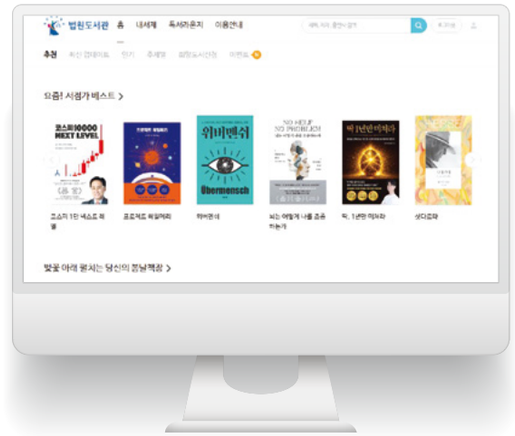
핑계는 끝났다! 대출 대기 없는 18만 권의 서재로 초대합니다

- 올여름, 에어컨 아래서 즐기는 가장 완벽한 마음 보양식 7선 -

글. 백규재 조사심의관(법원도서관)

안녕하세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백규재 판사입니다.
지난 2월 이곳으로 발령받아 온 지 어느덧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법원도서관으로 출근할 때만 해도 제 가슴은 부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책과 거리를 두었던 삶을 반성하며, 이제 일하는 틈틈이 책을 읽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리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막상 와서 겪어본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과 달리, 도서관 사무실의 일상은 수면 아래서 쉴 새 없이 발버둥 치는 백조처럼 몹시 바쁘고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다 보니, 저의 독서 생활은 우리 〈법원사람들〉 정도만 겨우 넘겨보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저의 빈약한 독서 생활에 훌륭한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난 4월부터 법원도서관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사실 우리 도서관에는 참 유용한데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묻혀 있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중 단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저는 주저 없이 이 서비스를 꼽고 싶습니다.





기존의 '소장형 전자책'은 종이책처럼 보유 수량에 제한이 있어서, 누군가 먼저 책을 빌려 가면 하염없이 예약을 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독형 전자책'**은 다릅니다. 동시 대출 수량에 제한이 없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같은 책을 펼쳐도 대기할 필요 없이 언제든 원할 때 즉시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도서관은 '부커스(Bookers)'라는 플랫폼을 통해 약 18만 권의 전자책과 7천 권의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 방대한 서재를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PC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에서도 '법원도서관' 앱이나 '부커스' 앱만 켜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어서, 저 역시 최근 이 서비스를 통해 자투리 시간마다 틈틈이 독서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만 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이 혜택을 법원 식구들과 나누고, 다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만끽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최근 눈여겨본 책 몇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버멘쉬

지은이: 프리드리히 니체
옮긴이: 어나니머스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끝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강렬한 문구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말입니다. 일생을 잔병치레로 고통 받고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며 엄청난 압박감을 견뎌야 했던 그는, 늘 '내면의 혼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상가였습니다.
책의 제목인 '위버멘쉬(Übermensch)'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여 마침내 '온전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인간'을 뜻합니다. 이 책은 방대한 원전을 그대로 옮긴 난해한 번역서가 아닙니다. 니체의 사상 중 인간의 본질과 삶의 태도에 관한 핵심만을 발췌해,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완전히 재해석한 113개의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와 서문만 살펴보아도 이 책은 얄팍한 위로 대신 "왜 당신은 아직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휩쓸려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혹은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단단한 마음의 중심이 필요할 때 곁에 두고 틈틈이 펼쳐보기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철학책이라는 편견은 잠시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저와 함께 『위버멘쉬』의 첫 페이지를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편한 편의점

지은이: 김호연

원 플러스 원의 기쁨을 나누고 삼각김밥 모양의 슬픔을 위로하는 곳,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편의점이 문을 엽니다."

이 책은 영화와 만화 시나리오를 넘나들며 유쾌하고 따뜻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온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우연한 인연으로 청파동 골목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서울역 노숙인 '독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불편한' 편의점일까요? 덩치는 곰 같고 과거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눌한 아르바이트생 독고와,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 물건마저 넉넉하지 않은 이 매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처음엔 그저 피하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피 대상이었던 독고가 특유의 우직함과 순수한 호의로 이웃들의 팍팍한 삶과 상처를 보듬기 시작하면서, 이 작고 불편한 공간은 어느새 사람들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가장 따뜻한 곳으로 변모해 갑니다.

효율과 속도만이 정답이라 여겨지는 세상에서, 이토록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는 치열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큰 뭉클함을 전해줍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위로가 그리워지는 날, 밤이 되면 마음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청파동 골목 모퉁이의 이 특별한 편의점으로 저와 함께 따뜻한 밤마실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무한(∞) 편

지은이: 채사장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왜 알면 알수록 채워지지 않을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한 번쯤 이런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지난 10년간 밀리언셀러로 자리 잡은 채사장 작가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가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화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5년 만에 출간된 시리즈의 완결판, 『지대넓얕: 무한(∞) 편』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수많은 지식을 채워도 진정으로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앎을 삶에 뿌리내리게 하는 '실천'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천이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나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내면의 변화를 뜻합니다.

특히 제목에 붙은 '무한(∞)'은 깊은 내면의 심연으로 잠수해 들어갔다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을 지닌 채 다시 현실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시리즈들이 방대한 인문학의 지도를 넓게 펼쳐 보여주었다면, 이번 책은 그 지도를 들고 어떻게 고요하고 평온한 삶에 이를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더 티처

지은이: 프리다 맥파든

옮긴이: 최주원

"모든 진실을 파악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칠 완벽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책은 출간하는 작품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를 휩쓸며 현존 최고의 '스릴러 여왕'으로 자리 잡은 프리다 맥파든의 심리 스릴러 『더 티처』입니다. 특유의 엄청난 몰입감과 속도감 덕분에 최근 애플 오리지널 필름스에서 드라마 제작까지 확정 지은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엄격한 규율이 지배하는 한 외딴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과거 한 교사와의 부적절한 스캔들로 학교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여학생 '애디'가, 모두가 선망하는 인기 교사 '네이트'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네이트의 아내이자 동료 교사인 '이브'는 애디가 자신의 남편마저 파멸시킬까 봐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 속에서 인물들이 감춰둔 끔찍한 비밀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의 서늘한 밑바닥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가의 필력이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짜릿한 재미를 원하신다면, 덥고 습한 여름밤의 불쾌지수를 단숨에 날려줄 이 매혹적인 스릴러의 세계로 빠져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방구석 미술관

지은이: 조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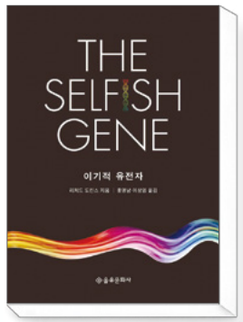
"'절규'의 화가 뭉크가 사실은 장수의 아이콘이었고, 천재 화가 피카소가 선배들의 그림을 훔친 '도둑놈' 소리를 들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어렵고 고상하게만 느껴지던 서양 미술 거장들의 빈틈 많고 인간적인 뒷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대한민국에 미술 열풍을 일으킨 책, 조원재 작가의 『방구석 미술관』입니다. 미술교양 입문서 최초로 100쇄를 돌파한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미술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모토 아래, 높게만 느껴지던 미술관의 문지방을 단숨에 낮춥니다. 반 고흐나 세잔처럼 교과서 속 멀게만 느껴졌던 천재 예술가들을 친근한 동네 형과 누나로 탈바꿈시키는 작가의 재기발랄한 입담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엄격한 법과 원칙 속에서 팽팽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때로는 가볍게 웃으며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유쾌한 휴식이 절실해집니다. 골치 아픈 미술사를 달달 외울 필요 없이 완벽해 보이던 거장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만으로도 지친 일상에 훌륭한 피로회복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장 편안한 옷차림으로 푹신한 소파에 기대어, 나만의 좁은 방구석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미술관으로 만들어보는 여유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 유전자

지은이: 리처드 도킨스
옮긴이: 홍영남, 이상임

"인간은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아마 과학 분야를 통틀어 가장 도발적이고 유명한 문장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출간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기의 문제작이자 진화생물학의 바이블로 불리고 있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 책은 다윈의 진화론을 개체나 종이 아닌 철저히 '유전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합니다. 도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생명체의 이타적인 행동이나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조차도 결국은 자기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남기기 위한 '이기적인' 전략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밈(meme)'이라는 단어를 처음 창안하여, 인간의 문화 역시 유전자처럼 스스로 복제되고 진화한다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저 유전자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선언은 다소 충격적이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책은 이런 냉혹한 생물학적 본능을 이해함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유전자의 전제적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묵직한 호기심을 채워줄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고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해상도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일상 표현의 영어

지은이: 케빈 강, 해나 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나의 평범한 일상을 영어로 바꿀 수 있다면?"

늘 마음 한구석에 숙제처럼 남아 있는 영어 회화. 『거의 모든 일상 표현의 영어』는 회화 실력을 늘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나의 일상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명쾌한 해답에서 출발한 실용적인 어휘책입니다.

이 책은 거창하고 어려운 문법 대신 기상, 출퇴근, 직장 생활, 병원, 쇼핑, 취미 등 우리가 매일 겪는 아주 친숙하고 보편적인 상황들에 집중합니다. "아, 이건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유용한 표현들이 직관적인 이미지, 생생한 실전 회화 지문과 함께 엮여 있어 지루할 틈 없이 재미있게 책장을 넘기게 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책상에 각 잡고 앉아 달달 외울 필요 없이, 출퇴근길이나 자투리 시간에 가볍게 훑어보기 참 좋은 책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나의 일상을 새로운 언어로 스케치해보는 소소하고 뿌듯한 즐거움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나게 여러 책들을 추천하고 보니, 아직 책들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 마음이 무척 든든하고 풍요로워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책들은 모두 법원도서관의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통해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 방대한 서재를 무료로 누리실 수 있고, 아직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간단히 나만의 서재를 여실 수 있습니다.

단숨에 책에 접근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PC로 이용하실 때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책·오디오북]
↓
[구독형 전자책 바로가기]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실 때 ('부커스' 앱 강력 추천!)

먼저 PC에서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 [전자책·오디오북] → [구독형 전자책 바로가기] → [마이페이지](오른쪽 상단) → [앱 이용 계정]** 메뉴에서 '부커스' 앱 전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부커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최초 1회만 로그인해 두시면, 이후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언제든 앱만 켜서 간편하게 독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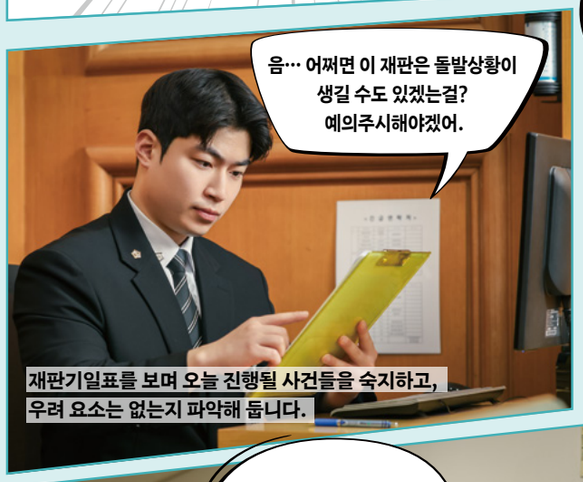
*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031-920-3684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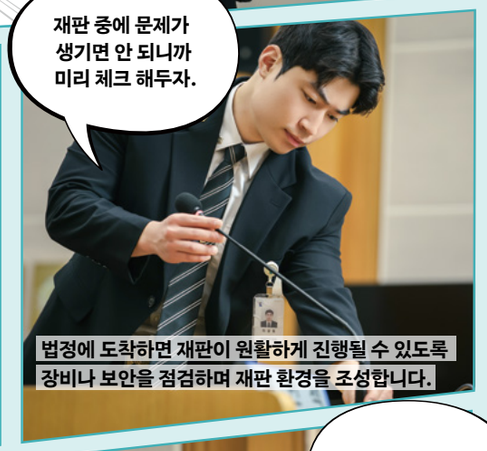
법정의 치안은 내게 맡겨라!
보안관리대 에이스
하광림의 하루

사진. 홍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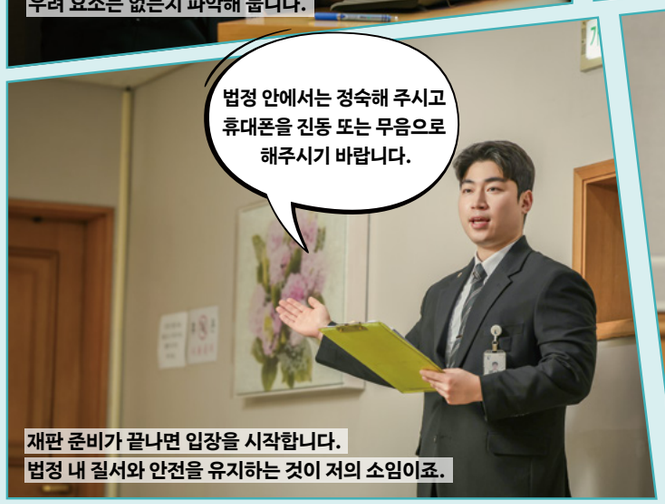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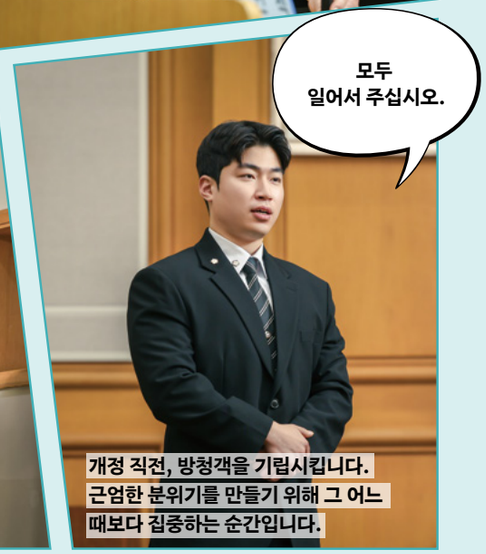
재판기일표를 보며 오늘 진행될 사건들을 숙지하고,
우려 요소는 없는지 파악해 둡니다.



법정에 도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비나 보안을 점검하며 재판 환경을 조성합니다.



재판 준비가 끝나면 입장을 시작합니다.
법정 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죠.



개정 직전, 방청객을 기립시킵니다.
근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는 순간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변 보호와 긴급 대응을
통해 전체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발 빠르게
현장을 통제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때로는 범행 내용에 분노를 느낄 때도 있지만,
보안관리대원으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법정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우리 결의 수호자
하광림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Q. 주무관님은 평소 어떤 분이신가요?

매사에 솔선수범하며, 맡은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대법정에서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늠름하고 든든합니다.

Q. 기억에 남는 따뜻한 미담이 있다면?

예기치 못하게 점심을 거르는 상황이 생겼는데,
주무관님이 제 자리에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챙겨 두고 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세심하게 배려해 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Q. 참여관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조직의 힘이 되는 **든든한 사자**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 주변을 도와주는 주무관님 덕분에
저희 팀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텃밭을 일구다

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오현석 참여관









1일 차: 법원에 문을 연 나의 작은 농장

2026년 5월 30일, 작은 농장을 시작했다. 품목은 다양하다. 옥수수 10그루, 가지 3그루, 토마토 4그루, 애플수박 3그루(?)를 심었다. 내가 원한 것은 토마토지만 주위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가 그렇다. 과장님께 허락받은 위치는 테니스장 뒤쪽에 있는 작은 공간이다. 어딘지도 모른 채 풀숲 사이를 뒤지다 예전에 누군가 농사지었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다시 새 생명을 이식했다. 왠지 농사에 일가견이 있을 것 같은 계장님에게 포부를 이야기했더니 농사에 관한 팁도 알려주고 땅을 갈 수 있게 도구도 빌려주었다. "농사는 장비발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물 빠지는 골도 만들고 둔덕도 쌓고 지주대도 세우고 유튜브에서 본 대로 모종을 8자 매듭으로 단단히 묶어두었다.



농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농사 팁이나 우려 섞인 목소리, 응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먹고 싶은 과일을 재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다. 지금 시기에 맞는 작물에 대해서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추가된 작물이 애플수박, 옥수수, 가지이다. 그들과 같이 식재 한 작물을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상상했던 즐거움은 예상치 못했던 재미였다. 비록 그들에게서 관리는 제대로 하느냐, 물은 제때 주느냐 등 간섭을 받고 있지만 그들에게 풍성한 미래를 안겨주고 싶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마음은 곧 열매라도 딸 것처럼 흐뭇하다. 귀여운 것들, 잘 자라 주렴.

2일 차: 새싹을 지키기 위한 비바람과의 사투

심고 다음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심은 직후에 오는 비는 작물에 좋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저녁 무렵부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잘 버티고 있을까? 아직 여리디여린 풀 수준의 것들이 이 모진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을까. 불안함에 잠도 잘 자지 못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보았더니 이미 물바다다. 지대가 낮다 보니 물은 이미 한가득이고 계속되는 비에 물은 계속 늘어만 갔다. 일단 급한 대로 삽을 들고 물고랑을 팠지만 여의찮았다. 아무리 봐도 물을 뺄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양수기가 생각났다. 그런데 이 조그만 농사 짓자고 양수기는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기야 삽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퍼낸 물은 낮은 지대에 위치한 농장으로 다시 흘러들었다.

우산을 어깨에 걸치고 두 손으로 삽질하는 사이 옷은 이미 젖었고 신발은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망연자실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허무함을 느꼈다. 태풍이 불 때 뉴스에서나 접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나도 그런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는 사이 눈앞에서 옥수수 한 그루가 불어난 물에 쓰러졌다. 동시에 기대도 무너졌다.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심으면 되는 줄 알았다. 둔덕을 쌓았지만 딱 내 수준이었다. 물을 우습게 봤다. 적당히 빠져나갈 줄 알았다. 찰랑거리는 물에 곧 잠길 것 같은 갓 심은 묘목을 속절없이 바라보다 포기하고 돌아섰다. 다시 시작해야지….





자그마한 생명력이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자연이란 그런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자기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견했다.









3일 차: 다시 한번 야심 차게

늦은 오후가 되자 비가 그쳤다. 심란한 마음으로 농장으로 갔다. 익히 뉴스에서 봐왔던 그런 모습을 상상했다. 오호통재라. 앗!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일단 물이 없어졌다. 물고랑이 없는데 물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 어디로 갔지? 누가 펐나? 물은 흙으로 스며든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 그저 놀라웠다. 그리고 눈앞에서 쓰러진 옥수수 한 그루를 제외하면 다들 멀쩡했다. 자그마한 생명력이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자연이란 그런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자기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견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삽을 들었다. 장갑도 끼고 장화도 갖추어 신었다. 본격적으로 땅을 팠다. 지렁이들의 몸이 둘로 나뉘는 광경도 보고 이름 모를 애벌레도 깨우고 개미집도 다 부쉈다. 미안하지만 할 수 없다. 물고랑도 더 깊이 팠고 그 흙으로 둔덕도 더 높이 쌓았다. 이미 심은 식물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 주위로 성벽을 쌓아줬다. 이제는 비가 내려도 괜찮을 듯하다. 태풍이나 장마가 와도 괜찮겠지!

4일 차: 자꾸만 보고 싶은 이유

이제 4일 차. 온통 마음은 새 생명에 가 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본다. 가서 하는 것이라고는 물을 주는 것 하고 풀 몇 포기 뽑아주는 것이 전부지만 그래도 옆에서 자주 보고 싶다. 한번 포기했던 생명이라서 그런지 미안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그렇다. 벌써 키가 조금은 큰 것 같고 새잎도 나려고 하는 것 같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는 볼펜으로 점 찍어 놓은 것 같은 크기의 토마토가 자리 잡은 것도 보인다.



문득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사람들 간의 대화가 사라지면서 생긴 서먹한 자리를 반려동물이 메워준다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 '내가 관심을 보여 준 것 이상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는 대상이 꼭 반려동물이어야만 하는 것일까? 반려식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식물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정도라면 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농사라고 하기에도 우습지만 요 며칠 했다고 별생각을 다 하는 것 같아 혼자서 웃었다.

예전에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는 없어져 버렸지만, 본격적인 밭은 정말 가기 싫었다. 더위, 벌레, 풀 등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많았고 버거웠다. 취미가 아니라 노동이었다. 아버지가 40년 정도 가꾼 밭을 남에게 팔려고 했을 때도 무조건 찬성이었다.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내가 고생하는 것도 싫었다. 절대 밭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그만 농장은 온전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꼭 결실을 얻지 않더라도. 관심을 기울이며 시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파릇파릇할 때 같이 힘낼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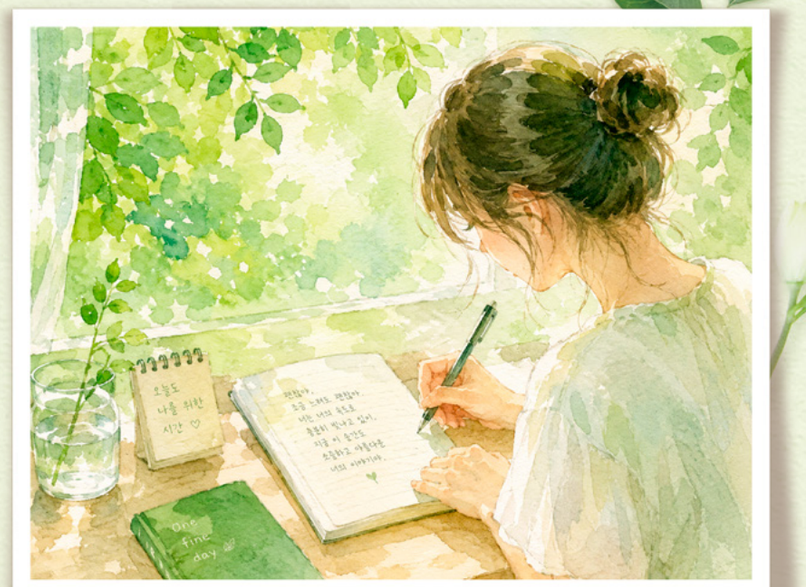
누군가 내게 말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즐거워할 나이가 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벌써 해남지원 가족들하고 같이 '탱탱한 알록달록 무지갯빛 방울토마토'를 먹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만 해도 신난다.

언제 자라나… 빨리 크면 좋겠다. 내일은 비료라도 줘볼까.



푸른 여름 저녁 내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글. 편집실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맺히는 도심의 열기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일상의 소음 속에
마음마저 더위를 먹는 한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비워내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이 건네는 시원한 그늘과 푸른 휴식이 그리워집니다.

이번 호에서는 오롯이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는 자유로움을 노래한
아르튀르 랭보의 시 「감각」을 함께 나눕니다.

해 질 녘의 푸른 기운이 밀려오는 들길, 발끝에 닿는 풀잎의 알싸한 촉각과 머리칼을 스치는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던 어린 시인의 시선은 가슴속 답답한 열기를 씻어 내는 청량한 물보라가 되어줍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창한 생각과 소란한 언어는 가만히 내려놓은 채
온몸의 감각을 열어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 방랑자처럼 시인의 문장을 가만히 따라가면서
가슴 깊은 곳까지 싱그러운 들판의 향기가 가득 차오르는 감각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문장: 자유의 감각

푸른 여름 저녁이면, 나는 길을 나서리라
보리 이삭에 찔리며, 잔풀을 짓밟으며
꿈꾸듯, 발끝에 전해지는 싱그러움을 느끼고
불어오는 바람에 맨머리를 내맡기리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리라
그저 끝없는 사랑만이, 내 영혼에 차오르리니
나는 멀리, 아주 멀리 걸어가리라, 보헤미안처럼
자연 속으로 —어느 여인과 함께인 듯 행복하게

- 아르튀르 랭보 「감각(Sensation)」

필사를 위한 여백

(위의 구절 중 마음이 머무는 문장을 천천히 옮겨 적어 보세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빛이 되는 일 영화 〈파반느〉

글. 편집실

여름의 끝자락에는 유난히 느린 호흡의 영화가 마음에 오래 머문다. 박민규의 장편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원작으로 한 영화 〈파반느〉는 자극적인 사건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내는 관계의 온도에 시선을 둔다. 서로를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저 서로의 곁을 지키는 일, 그 소박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다.



영화 〈파반느〉 공식 포스터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세상의 뒤편에서 만난 사람들

영화의 배경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이다.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지만, 누구의 시선에도 오래 머물지 않는 공간. 화려한 쇼윈도 뒤편의 그곳은 세상으로부터 한발 비켜선 인물들의 마음을 닮아 있다.

외모 때문에 세상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채 자신을 숨긴 미정, 그런 미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조심스레 다가가는 경록, 그리고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둔 채 관조적인 태도로 살아가던 요한. 영화는 이들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는다. 처음에는 방관자처럼 비켜 서 있던 요한 역시, 솔직하게 마음을 트고 가까워지는 미정과 경록을 통해 점차 자신의 고독을 허물고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긴 복도와 낮은 조명, 말보다 침묵이 많은 장면들을 따라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비스듬히 기대어 온기를 나눠 갖는 세 사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인물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머뭇거리고,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기도 한다.
영화는 그 망설임마저도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받아들인다.



스며드는 시간, 변화하는 마음

영화 〈파반느〉는 원작 소설이 지닌 깊은 응시를 이어받아 관계의 온도에 조금 더 시선을 둔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서로에게 슬며시 기대는 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들려준다.

영화는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시간을 오래 비춘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대신 조금 덜 닫게 되고, 혼자 견디던 시간이 누군가와 함께 견디는 시간으로 바뀌어 간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곁'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서로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쉽게 판단하지 않고 서로의 곁에 머물며 서로를 기댈 언덕으로 삼는 일. 영화는 그런 존재가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간다는 사실을 담담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영화 〈파반느〉 스틸컷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느린 춤처럼

'파반느(Pavane)'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추는 춤이다. 영화 역시 그 이름을 닮았다. 빠르게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고, 갈등을 서둘러 해결하지도 않는다. 인물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머뭇거리고,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기도 한다. 영화는 그 망설임마저도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받아들인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를 믿게 되는 과정에도 침묵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영화는 차분히 보여준다. 느린 리듬은 답답함이 아니라 인물들의 진심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힘이 된다.

빠른 변화와 즉각적인 해답을 기대하는 시대에 이 영화의 느린 호흡은 오히려 낯설게 다가온다. 그러나 〈파반느〉는 끝내 자신의 속도를 잃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가 끝난 뒤에도 그 느린 걸음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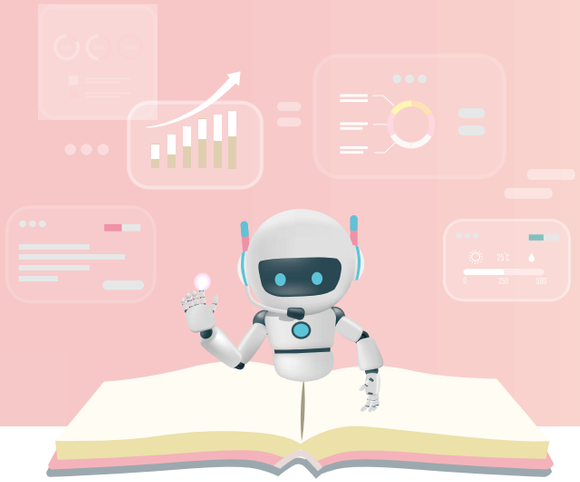
Movie Info

- 영화: 파반느(Pavane: For A Dead Princess, 2026)
- 감독: 이종필
- 출연: 고아성, 문상민, 변요한 외
- 줄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던 세 사람이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삶과 사랑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질문의 기술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글. 편집실



"동문서답만 하길래 그냥 제가 직접 썼습니다." AI를 업무에 도입해 본 직원들이 가장 흔하게 토로하는 아쉬움이다. 똑같아 보이는 AI인데, 왜 누구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일하고 누구는 쓸모없는 답변만 얻게 되는 걸까? 차이는 대화창 안에서 주고받는 명령어, 즉 '프롬프트(Prompt)' 기술에 있다. 이번 달 스마트 코트에서는 AI의 잠재력을 깨워 원하는 정답을 단번에 얻어내는 핵심 질문 기술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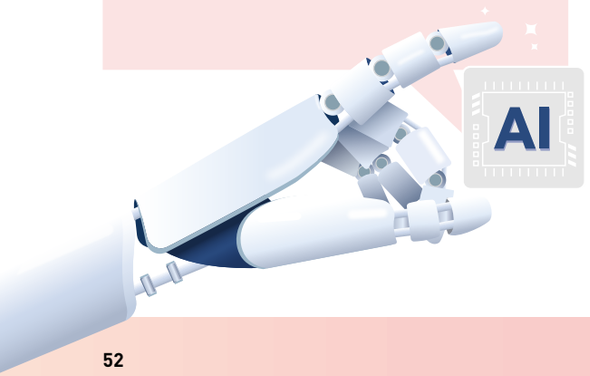
Step 1. 단발성 질문 대신 '연쇄적 맥락'으로 빌드업하라

초보자는 수십 페이지의 문서를 던지며 "읽고 분석해 줘"라고 한 번에 끝내려 한다. 하지만 복잡한 실무일수록 AI에게 한 단계씩 미션을 주는 '연쇄적 질문'을 던져야 답변의 깊이가 달라진다.

- How to 한 질문에 모든 요구사항을 넣지 말고, 앞선 답변을 디딤돌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 Case

내부 행사를 기획한다면 먼저 "작년 행사 피드백에서 가장 반응이 안 좋았던 점 3가지만 뽑아줘."라고 질문해 보자. AI가 답을 주면 이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행사 아이디어를 짜줘.", "아이디어를 토대로 기획안 초안을 작성해 줘."라고 이어나간다. 논리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더욱 탄탄한 결과물이 도출된다.



Step 2. 프롬프트를 짜기 힘들다면 역으로 '질문 권한'을 넘겨라

AI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AI에게 최고의 답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역지시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How to 명령어의 주도권을 잠시 AI에게 넘겨 나를 인터뷰하게 만든다.

- Case

대화창에 이렇게 입력해 보자. "이번에 새로 맡은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서를 쓰려고 해. 최고의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 질문 5가지를 던져줘. 내가 답하면 그때 작성해 줘." AI는 예산, 기한, 핵심 타깃 등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날카롭게 물어오고, 우리는 그 질문에 간단히 답만 하면 된다.



Step 3. 백문이 불여일견! 단 한 장의 '예시'를 제시하라

때론 장황한 서술보다 샘플 양식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를 기술 용어로 '퓨샷(Few-Shot) 러닝'이라고 부른다. 부서 고유의 보고서 서식이 있을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 How to 원하는 답변의 템플릿이나 모범 사례를 프롬프트에 포함하여 입력한다.

- Case

"내가 원하는 주간 업무 보고 요약 양식은 다음과 같다. [예시: ■ 업무명 / ● 추진 현황 / 쟁점 사항]. 아래의 원문 텍스트를 반드시 이 샘플 양식과 문체 그대로 복제해서 정리해 줘." AI는 예시의 구조와 문장 부호의 사용 방식까지 그대로 학습하여 오차 없이 결과물을 찍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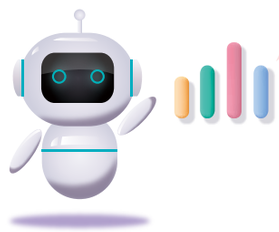
Step 4. 생각의 허점을 찾는 '반대 의견'을 요청하라

내 입장만 반영된 보고서나 기획안은 결재 과정에서 뜻밖의 날카로운 질문을 맞닥뜨리기 십상이다. 제출 전 AI에게 가상의 반대론자 역할을 맡기면 논리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 How to AI에게 의도적으로 비판자나 반대파의 입장에서 허점을 짚어달라고 지시한다.

- Case

"내가 작성한 기획안이야. 네가 [예산 집행에 보수적인 상급자] 혹은 [불편을 겪을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기획안의 약점과 예상되는 반발 3가지를 지적해 줘."라고 해보자. AI가 내놓은 반대 논리를 바탕으로 미리 보완책을 마련해 두면, 어떤 지적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보고서가 완성된다.



AI에게 "대충 알아서 잘해 와."라고 지시하는 것은 언제나 엉뚱한 결과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오늘 소개한 네 가지 지시 메커니즘을 기억하자. 질문의 한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모니터 속 AI는 그 어떤 베테랑 직원보다 유능하게 업무를 서포트하는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다.

센스 만점!

법원 N행시 짓기



짧고 강렬한 한 문장으로 당신의 재치를 뽐내주세요. 업무 스트레스를 날릴 유쾌한 유머부터,
동료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문구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법원 가족 여러분의 숨겨진 문학적 감수성을 깨워드립니다."

8월의 제시어

평화 **소통**

위 제시어 중 하나를 골라 도전하세요!(중복 참여 가능)

작성 예시 **평**온한 마음으로 갈등을 잠재우고 **화**합의 손길로 평화로운 일상을 가꿉니다.

7월 당첨자

- 심*아 — **[자]** 자비롭되 흔들리지 않고, **[유]** 유연하되 원칙을 지킨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정의.
- 이*은 — **[자]** 자신과 타인을 대할 때 **[유]** 유익보다는 배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법원을 만들어 가요!
- 박*준 — **[평]** 평범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등]** 등불처럼 공평하게 앞길을 비춰주는 법원이 되기를.
- 성*정 — **[평]** 평생 나랑 함께하자 네 인생에 **[등]** 등대가 되어 줄게
- 이*진 — **[평]** 평일에 열심히 일한 자여 **[등]** 등심 앞으로

참여 기간 2026년 8월 1일(토) ~ 8월 20일(목)까지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 스캔 후 제출

당첨자 선물 커피 기프티콘 5명
※ 선정된 N행시는 9월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법원사람들〉 주인공?!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삶의 지혜부터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반려 가족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싶은 인생의 순간을 지면에 기록해 보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법원사람들〉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참여 마감: 매월 10일
참여 방법: 이메일 접수 courtpeople@scourt.go.kr
※ 원하는 주제의 원고 1편, 관련 사진 5장 이상



법원의 노하우



일상을 조금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업무, 일상, 취미, 청소 어떤 분야든 OK!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특별한 노하우를 소개해 주세요. 나에게는 사소한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꿀팁이 됩니다!

※채택된 원고는 다음 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우리집 진짜 주인



나만 보기 아까운 우리 집 귀요미를 법원 가족들에게 자랑할 기회! 일상에서 함께 웃고, 위로받고, 추억을 쌓아온 반려동·식물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반려동·식물과의 행복한 순간으로 〈법원사람들〉을 따스하게 채워 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다음 호 〈법원사람들〉에 게재되며, 보내주신 사진은 예쁜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글솜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솔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ISSN 2951-2247